

# 바이마르 기(期) 독일의 ‘동성애자’ 해방운동의 대전(大戰) 이야기

— 성과학자 히르슈펠트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

마츠구치 유카 (규슈대학)

## 1. 시작하며

### 1.1 문제의 소재

최근 역사학에서는 전시의 ‘성(性)’을 둘러싼 문제를 주요 연구 테마 중 하나로 다루고 있다. 특히 전시 성폭력을 비롯한 성을 주목하는 현상은, 전쟁터에서의 젠더/섹슈얼리티 형태와 그 비대칭성의 해명을 촉구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때 문제로 다루어지는 ‘성’은 기본적으로 헤테로섹슈얼에 한정되어 있어 호모섹슈얼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 보고에서는 제1차 세계대전(이하, 대전) 도중 전시의 ‘성’을 둘러싼 문제를 검토한 유대계 독일인, 마그누스 히르슈펠트(Magnus Hirschfeld, 1868-1935)의 이야기를 소개하고자 한다. 당시 가장 권위 있는 성과학자인 동시에 ‘동성애자’ 해방 활동가이기도 했던 그는, 대전 기간에 전쟁터의 ‘동성애’를 둘러싼 여러 현상을 상세하게 기록·수집하고 출판했다. 본 보고에서는 이 히르슈펠트가 정리한 ‘전시의 동성애’ 이야기를 분석하고, 대전 후의 ‘동성애’ 해방 운동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를 밝히고 있다.

### 1.2 ‘동성애’를 둘러싼 시대 배경

히르슈펠트가 활약한 19세기 말에서 20세 초반의 독일은, 기존의 ‘동성애’ 연구에 있어서 게이 아이덴티티의 기원으로 주목받아 왔다. 이 시대의 독일에서는 신흥 과학의 발전과 사회주의·여성 참정권 운동 전개를 배경으로, ‘동성애’라는 존재의 발견, 성과학의 발전, ‘동성애자’ 해방 운동이 전개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먼저 ‘동성애’를 둘러싼 시대 배경을 확인해보자.

원래 독일을 비롯한 기독교 세계에서는 ‘동성애’ 행위는 고래로부터 종교적·윤리적인 죄로 단죄 받아야 할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하지만 18세기 중엽에 성과학이 등장하자 ‘동성애(Homosexuality)’라는 말이 등장하였고, ‘이성애’와 대치되는 고유의 존재로서 의학에서 다루어지게 되었다. 19세기 중엽에 성과학이 더욱 더 발전하는 가운데, ‘동성애’는 생득적 특징으로 이해되게 되었고, 여기에서 ‘동성애자’의 게이 아이덴티티의 싹이 탄생했다고 알려져 있다.

또한 ‘동성애자’를 둘러싼 환경으로 눈을 돌려보면, 술집이나 고급 클럽을 비롯한 교류의 장과 그것을 테마로 하는 문학이 베를린을 중심으로 발전했다. 그러는 한편 ‘동성애자’는 ‘이성애’의 규범을 일탈한 존재로 문제시되게 된다. 즉 국민국가 형성에 따른 성 질서를 재편성하는 과정에서, ‘이성애’와 ‘동성애’의 경계가 ‘정상’과 ‘이상’의 경계로 자리 잡게 된다.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동성애 기피’다.

당시의 ‘호모포비아’는 독일 제국형법 175조에 의해 법적 근거가 주어져 있었다. 이것은 ‘동성애’ 행위를 벌하는 법률로서 ‘동성애자’에 대한 모든 차별이나 공갈을 정당화하는 데 사용되었음과 동시에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에 걸쳐 ‘동성애’가 스캔들화되는 배경을 만들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동성애자’ 해방 운동이 펼쳐지게 된다. 그리고 그 중심인물이 바로 본

보고가 대상으로 하는 히르슈펠트다.

최근의 ‘동성애자’ 해방 운동사 연구 및 히르슈펠트 연구에서는 대전 당시 히르슈펠트가 한 경험이 바이마르 기의 해방 운동에 어떤 영향을 끼쳤느냐는 시점이 빠져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따라서 본 보고에서는 먼저 독일이 경험한 대전과 그 영향에 대해서, 섹슈얼리티에 착목하면서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다.

### 1.3 바이마르 기의 대전 경험 이야기

인류 사상 최초의 기계전·총력전을 펼침으로써 일찍이 없었던 규모로 대규모 살육을 가능케 한 대전으로 인해, 그 전까지 머릿속으로 그렸던 이상적인 ‘남성다움’은 철저히 탈구축되었다. 한편으로 장기에 걸친 대규모 군사 동원은 ‘남성의 영역’, 즉 군수 공장이나 군대로 여성을 빠르게 진출시켰다고 한다. 대전은 ‘남성다움’을 기반으로 하는 ‘국민’ 형성을 가속시키는 기능을 하면서도, 총력전 체제를 거침으로써 젠더 편성의 모순도 함께 드러나게 했다. 즉 종전은 ‘여성의 시대’와 ‘남성의 위기의 시대’가 동시에 막을 열었음을 의미했다.

대전 후의 독일, 바이마르공화국에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에도 눈을 돌려보자. 최근 연구에 따르면 바이마르 사회에서 정치적·문화적인 이야기를 할 때, 그것에 의미와 논거를 부여하기 위한 기점 내지는 틀로서 대전 시기의 ‘전선 체험’을 끊임없이 참조하게 되었다고 한다. ‘남성의 위기의 시대’에서의 ‘남성다움’의 재구성도, 예를 들어 ‘전쟁 신화’ 등의 대전 이야기 속에서 시도되었다. 그렇다면 ‘전선 체험’과 친화성을 가진 것으로 해석되면서도 일탈로 받아들여진 ‘동성애’는, 해방 운동의 문맥에서는 어떤 위치에 있었을까.

## 2. 바이마르 기의 ‘동성애자’ 해방 운동에서의 ‘전시의 동성애’

### 2.1 바이마르 기의 ‘동성애자’ 해방 운동

먼저 히르슈펠트를 축으로 당시의 해방 운동을 확인하겠다.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바이마르공화국에서는 많은 해방 운동·권리 옹호 단체가 발흥했다. ‘동성애자’ 해방 운동도 그중 하나로, 대전이 발발하기 전 히르슈펠트를 중심으로 본격화된 ‘동성애자’ 해방 운동은 이때 다시 세를 불리게 된다.

히르슈펠트를 비롯한 ‘동성애자’ 해방 활동가는 성과학에 의거해 출판 활동·계몽 활동을 통해 권리 옹호를 추진하려 했다. 히르슈펠트 이론의 특징은 첫째로, 모든 사람을 남녀의 혼합물로 보고 그중 하나로 ‘동성애자’를 위치시킨 점과, 둘째로 모든 인간이 정도의 차는 있지만 여성성을 갖추고 있음을 전제로 했다는 점이다.

또한 대전이 발발하기 전에 히르슈펠트가 성과학 연구를 집대성한 『남성과 여성의 동성애』를 참조하면, 히르슈펠트는 여기서 ‘남성다움’을 ‘군대’·‘병사’와 결부 지었고, ‘여성다움’에서는 ‘헌신’과 ‘애정’과 같은 요소를 찾아내고 있다. 즉 ‘남/여’라는 헤테로섹슈얼적인 기존의 이항대립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본질주의적인 젠더관에 입각했다는 한계도 지적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이항대립 사이에 독자적인 섹슈얼리티가 무수하게 존재하고 있음을 가리킴으로써 ‘성’을 단계적으로 파악하려 했다는 의미에서는 혁신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당시의 ‘동성애자’ 해방 운동에는 대전이 발발하기 전부터 이어져 온 매스큘리니스트(남권주의자; masculinist)를 중심으로 하는 단체나 바이마르공화국 기에 새로이 등장하는 조류 등, 히르슈펠트 외에도 많은 주장이 존재했다. 대전이 끝난 후, 많은 ‘동성애자’ 활동가는 대전이 스스로를 ‘진정한 남자’로 변화시키는 전환점이었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매스

컬리니스트를 중심으로 하는 단체가 발행하는 잡지 『자각(Der Eigene)』에서는, 참호에서의 ‘전우의식’을 ‘우애’로 칭송함으로써 자신의 정당성을 내보이고, 대전 경험에 있는 ‘동성애자’를 용감한 전사로 강조했다.

## 2.2 히르슈펠트의 ‘전시의 동성애’ 이야기: 『과거부터 현재까지』

대전 직후의 히르슈펠트도 예외 없이 ‘대전 경험’을 언급하지만, 그 이야기는 다른 활동가의 그것과는 선을 긋고 있다. 여기서부터는 그의 저서 2권을 이용해 분석한 결과를 소개하겠다.

먼저 히르슈펠트의 저서 『과거부터 현재까지』를 검토한 결과를 말하겠다. 이것은 1922년 및 1923년에 『우애』라는 게이 잡지에 연재됐던 자전적인 이야기를 1986년에 히르슈펠트 연구자가 정리해 출판한 것이다. 히르슈펠트는 여기서 ‘동성애자’ 병사로서의 자질에 ‘애정’·‘헌신’과 같은 (그가 주장하는) ‘여성다움’을 덧붙였다. 즉 그는 ‘병사’는 ‘남성다움’과 ‘여성다움’ 양쪽을 가지고 있다는 자신의 견해를 밝힘으로써 자신의 성과학 이론을 따르는 동시에 ‘우수한 병사’상으로는 ‘동성애자’가 적합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기존의 이항대립에 편입되었던 역할 분업을 그대로 이용하는 전략이었다고도 할 수 있으리라.

## 2.3 히르슈펠트의 ‘전시의 동성애’ 이야기: 『세계 대전의 풍속사』

여기서 다시 한 번 히르슈펠트에 대해, 전쟁과 ‘동성애’에 관한 1930년의 분석을 검토하겠다. 그는 1930년에 『세계 대전의 풍속사』를 출판했다. 이는 대전 시기에 그가 수집한 자료를 재사용하는 형태로, 전시의 ‘성’에 관한 다양한 현상을 정리한 책이다. 여기서 그는 ‘동성애자’를 ‘여성적인가 남성적인가’라는 기준으로 나누면서 전시에 그들이 한 공헌에 대해 기술했다.

먼저 히르슈펠트는 보다 ‘남성적’으로 여겨지는 ‘동성애자’가 전시에 보여준 활약상을 소개한 후, 그들이 전쟁에 참가한 동기로 다음 3가지를 들었다. 1. 해방 운동에 대한 기대, 2. 동성애자와의 만남의 장, 3. 자살, ‘동성애자’는 주로 이 3가지를 원동력 삼아 전쟁터로 나가 전쟁에 참가했다고 보고 있었다. 즉 ‘병사다움’ 내지 ‘남성다움’의 경향이 강한 ‘동성애자’의 전쟁 공헌은, 대전이 발발하기 전 ‘동성애자’를 둘러싸고 있던 가혹한 상황이 초래한 필연적 귀결이라는 것이다.

다음으로 히르슈펠트는 보다 ‘여성적’으로 여겨지는 ‘동성애자’를 논할 때, ‘여자 같은 동성애자’로 여겨졌던 사람들의 ‘전쟁 혐오’를 담은 편지를 인용했다. ‘동성애자’의 ‘애국적 태도’를 증명함으로써 그들을 옹호했던 관점에서 본다면, ‘동성애자’의 ‘전쟁 혐오’를 드러내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인 것처럼도 느껴진다. 하지만 편지의 저자는 그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어지는 문장에서 읽을 수 있다. 그 문장에서는 ‘여성적인 동성애자’들이 전쟁에 적응하지 않고, 전쟁에 저항하고 ‘인류의 싸움’으로서 위생병이나 의무관으로 전쟁에 종사했다는 사실을 들며, ‘여성적인 남성 동성애자’를 옹호하는 시도를 하고 있었다. 이처럼 1930년 당시의 그는, 전쟁에 대한 공헌이나 전쟁 참가를 통해 애국심을 증명함으로써 해방운동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에 부정적이었으며, 오히려 해방운동이 평화주의적 그리고 코스모폴리탄 관점에서 ‘인류의 싸움’에 공헌하기를 기대했다.

이와 같은 변화의 요인으로는 ‘동성애자’ 해방 운동 내부의 전략, 히르슈펠트가 지지하는 사회민주당의 의향, 또 대전 시기부터 바이마르 기에 걸쳐 그가 깊은 관계를 맺었던 평화주의 단체인 여성 활동가의 영향이 크게 반영되었음을 들 수 있다. 이를 감안해 볼 때, 히르슈펠트의 전략은 자신의 활동과 여성 운동과의 연대, 그리고 여성 운동에서의 평화주의와의

연관과 그 성과를 이용해, ‘동성애자’가 가진 ‘여성다움’을 긍정적으로 제시해서 보여준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 3. 마치며

바이마르 기의 많은 ‘동성애’ 활동가는 ‘대전 경험’을 이용해 ‘남성다움’의 관점에서 ‘동성애자’의 가치를 매겼던 데에 반해, 히르슈펠트는 ‘여성다움’을 가졌음을 전제로 한 ‘동성애’ 이론과 모순되지 않는 형태로 ‘동성애자’를 옹호할 필요가 있었다. 그가 ‘여성다움’에 평화주의를 투영한 것은 남녀 이항대립을 온존시켰다는 의미에서 일종의 한계를 가지며, ‘국민’이 ‘남성다움’을 기조로 삼은 것과, 해방 운동이 가진 ‘국민화’라는 측면에 ‘여성다움’이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딜레마를 체현하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그것은 ‘남성 동성애자’의 ‘여성스러움’을 굳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점에서 획기적이다. 대전이 끝난 후의 히르슈펠트는 ‘동성애자’ 해방 운동뿐만 아니라, ‘성’에 관한 여러 문제, 평화주의 운동, 국제 협력을 같은 문제 계열로 인식하고, 보다 큰 틀에서 문제를 해결하려 시도했다. 이러한 사실은 바이마르 기 독일의 ‘동성애자’ 해방 운동이 보여주는 커다란 전진과 가능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아닐까.

### 참고 문헌

Hirschfeld, Magnus (1914): Die Homosexualität des Mannes und Weibes, Berlin.

Hirschfeld, Magnus (Hg.) (1930): Sittengeschichte des Weltkrieges, bearbeitet von Andreas Gaspar, 2. Bde., Leipzig [邦語抄譯: マグヌス・ヒルシュフェルト／高山洋吉譯 (2014) 『戦争と性』 明月堂書店].

Hirschfeld, Magnus (1986): Von einst bis jetzt. Geschichte einer Homosexuellen Bewegung 1897-1922, herausgegeben und mit einem Nachwort versehen von Manfred Herzer / James Steakley, Berlin.

(번역책임자:천감재)